

[전문가칼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선택, 농지연금

강수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장



1988년도 쌍문동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대사들이 많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슈퍼맨이 살았다. 그는 세상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없는 맥가이버였고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주는 짱가였으며 약한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 중에 히어로였다'라는 나레이션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곳곳이 버텨내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여전히 강인한 슈퍼맨이고, 히어로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

농지연금을 받고 계시는 농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더 여실히 와닿는다. "농지연금을 받고부터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의지하지 않아서 좋다"는 전남의 한 농지연금 수급자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농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전기요금, 병원비 등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노후 생활에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은퇴직불형 연금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을 가입할 경우 수급자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농지연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상품 변경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최초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하여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기간 제한 없이 1회 상품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수급자는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수급자 사망 시, 농지연금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당초에는 수급자가 사망하고 난 후 60일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했는데, 6개월 이내로 채무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 상속 절차,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네 번째는 농지연금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담보농지 가입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급자는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부모의 마음은 더욱 넉넉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